

Consumer Insight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

기관	컨슈머인사이트	이메일	kimmh@consumerinsight.kr
문의	김민화 연구위원	연락처	02) 6004-7643
배포일	2024년 5월 16일(목) 배포	매수	총 4매

여가시간 최빈곤층은 1~3세 자녀 둔 30, 40대

컨슈머인사이트 '여가·문화·체육 주례 조사'로 본 한국인의 여가 실태

- 평균 여가시간 하루 3.86시간, 주 27시간
- 20대와 미혼가구가 제일 길고
- 영아자녀(1~3세) 가구 가장 짧아
- 기혼자 여가시간은 막내 성장 단계가 좌우

<한국인의 여가 실태>

- ① 여가시간
- ② 여가시간 충분도
- ③ 여가생활 만족도
- ④ 경험한 여가활동
- ⑤ 관심있는 여가활동

○ 우리나라 국민 중 1~3세 영아 자녀를 둔 가구의 여가시간이 제일 짧았다. 하루 평균 2.69시간으로 전체 평균 3.86시간의 70% 수준에 그쳤다. 20대와 미혼가구가 길고, 기혼 가구는 짧았는데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더 짧았다. 즉, 여가시간의 길이는 막내 자녀의 성장 단계와 관련성이 가장 컸다.

□ 여행·여가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21년 10월 기획 조사로 시작한 '여가·문화·체육 주례조사(19세 이상 성인 매주 500명, 연간 2만6000명 대상)'에서 우리 국민의 여가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여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여가시간의 정의는 '일(집안일 포함)이나 학업, 출퇴근, 일상적 식사 및 수면을 제외한 시간'으로 했고, 기혼자의 가구구성은 막내 자녀의 성장 단계 기준으로 구분했다. 이 리포트는 '23년 1년간 총 2만7426명의 여가시간을 분석한 것이다.

□ 해당 데이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빅데이터센터구축사업을 통해,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플랫폼 마켓C www.bigdata-culture.kr에서도 공개되고 있다.

■ '21-'22년 대비 하루 0.13시간, 주 0.9시간 감소

○ '23년 조사 응답자의 평균 여가시간은 하루 3.86시간, 일주일 27.0시간이었다[그림]. 조사 초기 6개월 평균('21년 10월~'22년 3월 주 27.9시간, 일 3.99시간)보다 하루 0.13시간, 주 0.9시간 줄어들었다(참고. [여가시간 충분합니까? 5명 중 3명은 "NO"](#)). 감소의 주된 이유는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른 사회활동 증가와 재택근무 축소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중 평균은 3.09시간, 주말은 5.78시간이었다.



■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 크고, 자녀 성장단계별 차이 더 커

-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남성(하루 3.90시간)과 여성(3.82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연령대별 차이는 컸다. △40대(3.35시간)가 제일 짧았고, △50대(3.54시간) △30대(3.69시간) △60대 이상(4.09시간) 순이었으며, △20대(4.85시간)는 모든 연령대 중 눈에 띄게 길었다.
- 연령대보다 더 큰 차이는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성장 단계 등 '가구 구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막내 자녀 기준으로 △1~3세 영아자녀 가구(2.69시간)가 제일 짧았고 △4~7세 유아기(2.87시간) △초등생(3.10시간) △청소년(3.38시간) 자녀 가구 순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는 양육 부담이 여가시간의 길이와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 양육 부담이 주된 이유이나 가사 부담도 영향을 주고 있다. △무자녀가구(3.85시간)는 △성인자녀(3.76시간)보다 길고 △독립자녀(4.05시간) 가구보다는 짧았다. 즉, 자녀가 성인일지라도 동거 자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는 가사 부담으로 무자녀가구보다 여유 시간이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 30, 40대 영아자녀 가구, 20대 미혼가구의 절반 수준

- '연령대x가구구성'을 통틀어 여가시간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집단 톱3는 막내가 영아 단계인 40대(2.54시간)와 30대(2.62시간), 유아 단계인 30대(2.83시간) 순으로 모두 하루 3시간 미만이었다. 40대 영아자녀 가구 기준으로 전체 평균(3.86시간)의 3분의2(66%) 수준이고, 20대 미혼가구(4.90시간)에 비하면 절반(52%) 밖에 안 됐다.
- 영·유아 자녀를 둔 30, 40대라면 육아와 사회생활의 중추 세대임에도 현실에서는 어느 계층보다 심각한 '여가시간의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인 결혼·출산 기피의 한 원인일 수 있다. 국민 건강과 삶의 균형은 물론 국가 존립 차원에서도 '여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컨슈머인사이트는 **비대면조사에 효율적인 대규모 온라인패널**을 통해 **자동차, 이동통신, 쇼핑/유통, 관광/여행,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빅데이터를 패널 리서치 데이터와 융복합 연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00% 모바일 기반**으로 **전국민 표본 대표성**을 가진 **조사 플랫폼 '국대패널'**을 론칭하고 **조사업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만 19~69세 남녀 500명(연간 2만6000명 조사)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여가문화체육 주례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여가에 대한 관심과 경험, 만족도 등 여가·문화·예술·스포츠 활동 전반에 대해 주 단위로 자료를 수집해 국민 여가생활의 현황과 추이 변화를 포착, 분석할 수 있다.

Copyright © Consumer Insight. All rights reserved. 이 자료의 저작권은 컨슈머인사이트에 귀속되며 보도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r-more-Information

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이제성 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Ph.D	leejs@consumerinsight.kr	02)6004-7631